

軍事戰略의 概念에 關한 研究

專任講師 權 赫 達

—目 次—

第 1 節	序 言	第 5 節	軍事戰略의 本質
第 2 節	軍事戰略의 定義	第 6 節	結 語
第 3 節	軍事戰略과 政策		註
第 4 節	軍事戰略의 目的		參考文獻

第 1 節 序 言

平和나 그렇지 않으면 戰爭이나를 選擇하는 것은 힘 있는 者의 權利에 屬한다. 파스칼의 말과 같이 「힘 없는 正義는 虛弱한 것이고, 正義 없는 힘은 暴力이니 正義는 반드시 힘과 結付되어야 함」은 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우기 國際社會에 있어서, 戰爭은 交戰 雙方의 合意에 依하여 始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一方의 侵略的 意圖에 따라 언제든지 발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平和를 사랑하고 戰爭을 憎惡한다면, 그만큼 더 平和를 保障할 수 있는 힘을 保有하여야 할 것은 이 또한 再論의 여지가 없다.

한 나라의 國力은 비단 軍事力만이 아니라 政治, 社會, 經濟, 文化等 各分野의 힘의 總和로 評價될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安保를 담당할 第一次의인 힘은 軍事力이며, 그 責任은 軍人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軍事力을 보다 充實히 하여 敵보다 優越한 狀態를 항상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軍事力은 生産的인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消費的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必要한 最小限의 軍事力」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不幸하게도 이 「必要한 最小限의 軍事力」이 「可能한 最大限의 軍事力」을 오히려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國家의 存立이 위협받는 심각한 局面에 逢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各國은 이 부족한 間隔을 補填하기 위하여 集團安全保障體制를 구축하거나, 또는 軍事力의 質的 向上으로 量的 不足을 補完하는 것이다.

集團安保體制의 경우에 있어서는 加盟國의 國家利益이 일치하는 동안은 이것은 有效한 한 方便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한지라도 國家와 民族의 運命을 第三國의 善意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하물며 變轉하는 世界情勢 속에서 언제까지나 集團安保體制의 加盟國이라 하여 各國의 國家利益이 一致되어 있을 것이라는 保障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라가 必要로 하는 水準으로 軍事力의 量的 增強을 할 수 있도록 國力을 伸張하는데 最善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現存 軍事力의 効率을 極大化하기 爲한 質的

向上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軍事力의 質은 여러 가지 要素의 相互作用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나 그중 무엇보다도 그 軍隊의 運用原理인 軍事敎理와 軍事戰略의 開發에 따라 向上될 수 있는 것이다.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軍事敎理의 重要性을 強調하여 「美國은 生産力에 있어서 敵側을 壓倒함으로써 兩次大戰에서 勝利하였기 때문에 資源과 技術에 있어서의 優勢를 곧 軍事力의 優勢와 同一視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歷史는 優秀한 戰略敎理가 資源面에서의 優勢와 거의 같은 程度로 勝利의 原因이 되어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1940年, 독일은 時代에 뒤떨어진 戰略概念에 執着해 있던 聯合軍보다 優秀한 軍事敎理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裝備에 있어서는 同等하였으며, 數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일을 능가 하였던 聯合軍을 敗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優秀한 機動性과 砲兵의 優秀한 用法, 機動과 火力의 더욱 훌륭한 調和는 나폴레옹에게 勝利의 基礎를 제공하였다. 이와 유사한 事例로서, 마케도니아 方陣(Macedonian Phalanx)을 능가한 로마 군단(Roman Legion)의 勝利와 中世 騎士에 대한 英國 弓手의 勝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勝利는 資源에 의한 勝利가 아니라 戰略敎理에 依한 勝利이다」(1)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우리 나라도 物量的 軍事力의 增強을 圖謀할 뿐 아니라 우리의 立場에 알맞는 戰略敎理의 發展에 더 많은 努力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軍事學 研究 및 敎理 啓發에 基礎가 되는 各種 用語와 術語의 概念이 統一 整理되어 있지 못하여 軍事學 發展에 상당한 障礙 要因이 되고 있다. 이에 本小論은 軍事戰略의 概念을 明確히 함으로써 戰略敎理의 發展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데 目的이 있다.

이 目的을 위하여 먼저 戰略의 定義를 考察하고, 이어서 軍事戰略과 政策의 關係를 규명하고 나아가 軍事戰略은 어떠한 目的을 가진 것인가를 살펴보고, 또 軍事戰略의 本質이 무엇인가를 學者들의 著書를 通하여 比較 檢討하며 筆者의 所見대로 要約 整理해 보려고 한다.

第 2 節 軍事戰略의 定義

1. 古典的 定義

「스트라티지」(Strategy)는 스트라테지아(Strategia)라는 희랍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말은 스트라테고스(Strategos)의 用兵術을 의미한다(2). 그런데 이 스트라테고스는 희랍 方陣(Greek Phalanx)에 있어서 10個隊의 텍시스(Taxis)가 이루는 킬리아키아(Chiliarchia)의 지휘관을 말하며, 1個隊의 텍시스는 縱橫 各 10名씩 100名の 戰鬥員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스트라테고스는 1,000名の 戰鬥員을 지휘하는 部隊의 指揮官이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方陣(Macedonian Phalanx)의 경우에 있어서는, 킬리아키아는 4個隊의 신테그마(Syntagma)로 구성되며, 1個隊의 신테그마는 縱橫 各 16名씩의 戰鬥員으로 편성되므로 결국 스트라테고스는 이 경우에 있어

서도 1,000名의 戰鬥員을 指揮하게 된다(3).

그러므로 스트라테지아의 本來의 뜻은 「將軍의 用兵術」(The Art of Generalship)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이 近代兵學에서는 어떻게 定義되어 使用되었는가를 몇몇 學者의 見解를 좇아 살펴 보겠다.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그의 名著 戰爭論(Vom Kriege)에서 「戰略이란 戰爭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諸戰鬥을 運用하는 技術이다. 환언하면 戰略은 戰爭의 計劃을 立案하고 戰爭을 構成하는 相異한 戰役의 經路를 設定하며 各各의 戰役에 포함될 諸戰鬥을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定義하였다(4).

이 클라우제비츠의 定義에 對해 리델·하트(Liddell Hart)는 다음과 같이 그 不當性を 비판하고 있다.

「이 定義의 첫째 缺陷은 戰略이 政策의 分野나 또는 戰爭을 수행하는 보다 높은 次元의 分野를 침범하고 있는 점인데, 그 分野는 當然히 政府의 責任이라야 하며, 軍事指導者들은 政府가 실제로 作戰을 統制함에 있어서 하나의 代理人 役割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軍事指導者들에게는 위에서 말한 分野의 責任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 缺陷은 戰略의 意味가 純殊한 戰鬥의 使用에 局限되며, 그렇기 때문에 戰鬥은 戰略 目的의 達成을 위한 唯一한 手段이라고 보는 점이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 만큼 思慮가 깊지 못한 제자들이 目的과 手段을 混同하여 戰爭에 있어서 하나의 決定的 戰鬥을 위하여 다른 모든 要素가 이에 從屬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結論에 到達하기 쉬웠던 것이다」라고 하였다(5).

사실 클라우제비츠의 위와 같은 定義는 古代로부터 絶對王政의 近世에 이르기까지, 즉 알렉산더大王으로부터 프레데릭大王이나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現代에 들어와서도, 軍國主義 獨逸이나 日本에 있어서와 같이 國家의 最高 統治者가 軍隊의 指揮官을 겸하고 있을 때까지는, 바꾸어 말하면 軍事指導者가 政治를 專橫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다른 모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戰略에 優先하는 政策이 엄연히 存在하며, 그렇기 때문에 軍作戰遂行에 國家의 모든 政策이 봉사해야 한다는 不合理的 主張이 容認될 수 없는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위와 같은 定義는 容納될 수가 없다.

몰트케(Helmuth Karl Bernhard von Moltke)는 「戰略이란 내다볼 수 있는 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한 將帥의 處분에 맡겨진 諸手段의 實際의 適用이다」(6)라고 하였다. 이 定義는 軍司令官에게 그를 임명한 政府에 대한 責任과 權限의 限界를 明確히 하고 있는 點에서 클라우제비츠의 定義보다 한 걸음 發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델·하트는 「戰略이란 政策上的 諸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軍事의 手段을 分配 適用하는 技術이다」(7)라고 定義하였으며, 웨브스트辭典에는 「戰略은 戰爭目的을 達成하고자 한 交戰國의 武裝兵力을 使用하는 科學이며 技術이다」(8)라고 하였다.

戰略에 대한 각양각색의 定義中 가장 代表的이라 할 수 있는 이 세가지 定義를 비교 종합하여 戰略에 대한 古典的 定義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이 세가지 定義를 戰略은 「무엇을 위하여」(For What), 「무엇을 가지고」(With What), 「누가 하는 것인가」(Who)하는 세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첫째, 「무엇을 위하여」(For What)에 대하여 세 定義는 各各 「내다 볼 수 있는 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政策上的 諸目的을 위하여」, 「戰爭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라고 表現하고 있다. 그런데 戰爭을 他手段에 依한 政治(9)라고 한다면 위의 「戰爭目的」은 곧 國家政策에 依하여 設定된 政策上的 目的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무엇을 가지고」(With What)에 대하여 살펴보면 各各 「將帥의 處분에 맡겨진 諸手段」, 또 「軍事的 手段」 및 「武裝兵力」이라고 하여 그 手段은 곧 「軍事力」임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누가 하는 것인가」(Who)에 대해서 물트케는 「將帥」라고 하였고 기타는 분명한 표현이 없으나 그 手段이 軍事力인 것을 미루어 보면 軍指揮官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綜合해 보면 『戰略이란 國家政策에 依하여 設定된 諸目的을 위하여 軍指揮官이 그에게 맡겨진 軍事力을 運用하는 科學이며 技術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戰略이란 用語가 軍事的 用語로서만 사용되던 때의 一般的 定義라는 點에서 볼 때 이것을 軍事戰略의 古典的 定義라고 할 수 있다.

2. 現代的 定義

위에서 軍事戰略의 古典的 定義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戰爭이 軍事力對 軍事力の 鬪爭에 不過했던 總力戰 以前の 時代에는 적합한 定義였을런지 모르나, 戰爭이 國力對 國力 間的 總力戰으로 변모한 現代에 와서는 이에 만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定義는 다만 軍事力만을 취급(It deals with military forces only)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戰略이 將軍의 用兵術의 全部(The whole art of war)인 것처럼 前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검토해 보면 兵法 혹은 兵術(Art of War)은 戰略(Strategic) 뿐만 아니라 戰術(Tactics)과 최근에는 第三의 分野로 兵站(Logistics)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戰術도 명백히 戰鬪에 있어서 敵에게 最大의 충격을 가하기 위하여 武器를 使用하는 「技術」(Art)이며, 兵站 또한 보급과 機動의 「科學」(Science)이다(10). 特히 戰爭이 總力戰化한 近代以後에는 戰爭에 있어서 軍事的 要素와 非軍事的 要素를 區分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國力이 動員되고, 平時에 있어서도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國家政策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및 軍事的 諸要素를 統合 調整해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더우기 一次大戰以後에는 「平和를 他手段에 依한 戰爭의 계속」이라고 보는 共產主義國家의 대두와 宣戰布告 없는 戰爭, 講和條約 없는 平和가 오히려 正常的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러서는 平和와 戰爭의 區分이 不可能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戰略도 純粹 軍事的 意味의 戰略보다 더 넓은 概念의 戰略이 必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웨드마이어將軍(Gen. Wedemyer)은 보다 넓은 概念의 戰略을 大戰略(Grand Strategy)라고 하여 이것은「國家政策에 依해 決定된 諸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國家의 모든 資源을 運用하는 技術이며, 科學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國家의 全資源을 政治, 經濟, 心理 및 軍事的 資源으로 區分하였다(11).

그리고 美軍事術語辭典에는 戰略을 國家戰略(National Strategy)과 軍事戰略(Military Strategy)으로 區分하여 前者를「勝利的 蓋然성과 有利한 結果를 增大시키고, 敗北의 機會를 減少시키며 國家政策에 最大의 支援을 할 수 있도록 戰平時間에 一國家의 政治, 經濟, 心理 및 軍事力을 發展시키고 使用하는 科學이며 技術이다」라고 하였으며, 後者를「軍隊의 使用 또는 軍隊의 위협으로서 國家政策目標을 達成하고자 一國家의 武裝軍을 使用하는 科學과 技術이다」라고 定義하고 있다(12).

또한 「얼」(Earle)은『오늘날의 戰略은 軍事力을 포함하는 一國 또는 聯合國의 資源을 管理하고 利用하여, 그 重大한 利益을 實際의 敵, 潛在의 敵 혹은 假想的인 敵에 대해서 增進, 確保하는 技術이며, 때때로 犬戰略이라고 불리우는 最高型의 戰略은 國家의 政策과 軍備를 結合하여 戰爭에 呼託할 必要가 없게 하고 만일 戰爭을 하게 되면 最大限의 勝算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戰爭의 양상이 總力戰으로 확대됨에 따라 戰略의 概念도 國家의 全資源을 手段으로 하는 國家의 次元의 戰略, 卽 國家戰略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國家戰略은 그 使用하는 資源의 종류에 따라 軍事力을 手段으로 하는 軍事戰略을 위시하여 經濟戰略, 政治戰略, 心理戰略 등으로 區分되었다. 이에 따라 軍事戰略의 現代的 定義는『國家政策에 依해 決定된 諸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軍事力을 運用하는 技術이며 科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第 3 節 軍事戰略과 政策

上述한 바와 같이 軍事戰略은「國家政策에 依해 決定된 諸目標의 達成을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國家政策을 根據로 하여 成立되며, 또 國家政策을 具體적으로 實踐하는 方法이며 計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軍事戰略의 概念을 더욱 明白히 하기 위하여서는 國家政策과 國家戰略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또 그것은 軍事戰略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考察해 볼 필요가 있다

國家政策은 國家目標의 達成을 위한 國家의 行動原則 및 行動方針이다(14). 따라서 리델·하트는「國家戰略이란 用語는 戰爭遂行을 指導하는 政策과 實際적으로 同義語인 同時에 戰爭의 目標을 支配할 보다 根本的인 政策과는 구별되며「政策的 遂行」이라는 意味이다. 왜냐하면 國家戰略—高次의 戰略—의 役割은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의 모든 資源을 戰爭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調整하고 管理하기 때문이다」(15)라고 하였다. 그리고 「킹」(King) 教授도 이와 같은 뜻으로「政策과 戰略은 종종 그 意味가 중복될지라도 그 구별은 뚜렷하다. 즉 만일

政策이 本質的으로 行爲나 決定의 形態(Pattern)라면, 戰略은 本質的으로 計劃(Plan)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政策은 行爲나 決定을 規制하는 法則(Rule)이고 戰略은 行爲나 決定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手段이 目標의 完遂를 위해서 指向되어야 하는 計劃이다」(16)라고 하였다.

이러한 見解를 綜合해 보면 國家政策은 國家目標의 達成을 위한 國家의 基本的인 行動指針이며, 國家戰略은 國家政策에 따라서 이를 遂行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國家政策보다 下位의 概念이다.

그런데 이 國家戰略의 手段인 「힘」(Power)은, 리델·하트의 區分에 依하면 ① 經濟的 壓力的 힘, ② 外交的 壓力的 힘, ③ 商業上 壓力的 힘과, ④ 敵의 意志를 弱화시키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倫理的 힘, 그리고 ⑤ 軍事的인 힘의 다섯 가지로 區分되며, 특히 軍事力은 이 여러 가지 手段中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17)

구태어 리델·하트의 見解에 따르지 않을지라도, 國家戰略의 手段은 要컨대 「國力」인고로, 戰略의 種類도 이 國力の 여러 要素만큼 多樣할 수 있다.

學者들의 一般的인 見解를 좇아 國力を 政治的, 經濟的, 心理的 그리고 軍事的인 힘으로 大別한다면(18) 國家戰略은 여기에 따라 政治戰略, 經濟戰略, 心理戰略 그리고 軍事戰略 등으로 區分된다.

그러므로 軍事戰略은 國家政策의 軍事的 分野인 軍事政策을 基礎로 하여 成立되며 그것을 實踐하기 위한 計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軍事力을 行使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軍事力을 行使하게 하는 政治的 目的이 무엇인가를 正確히 認識하고 이 目的에 充實히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軍事力은 一種의 暴力이며 戰爭의 計劃 및 遂行의 대부분은 職業軍인에 依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兩者의 屬性이 結合되어, 戰爭이 勃發했을 경우에 基本的인 國家目的을 忘却하거나, 그것을 軍事目的과 同一視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戰爭이 일단 勃發되면 國家政策上의 目的을 위하여 軍事的 勝利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軍事的 勝利를 目的으로 모든 國家政策이 手段으로서 이에 從屬하는 것처럼 目的과 手段이 轉倒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國家政策과 軍事戰略의 正當한 關係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비록 軍事的 勝利를 獲得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政策의 達成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無意味한 勝利가 될 뿐이다(19).

그러므로 軍事戰略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에 優先하는 政策에 基礎를 두어야 하며 또한 政策을 遂行하는 한 手段으로서의 計劃이 되어야 할 것이다.

第 4 節 軍事戰略의 目的

1. 클라우제비츠의 見解

古代 마라톤 전투로부터 二次大戰에 이르기까지 軍事戰略의 目的은 敵의 軍事力을 擊滅하는 데에만 있는 것처럼 認識되어 왔다.

마라톤 광야에서 밀티아테스는 다리우스가 이끄는 페르샤軍을 擊滅함으로써 그 侵略意圖를 분쇄하였으며, 알렉산더 大王은 이소스전투, 알베라전투 등에서 페르샤군을 擊滅함으로써 東方征伐의 大業을 성취하였고, 스키피오는 한니발軍을 자마(Zama)전투에서 擊滅함으로써 갈타고에 대한 로마의 勝利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밖에 일일이 列擧할 수 없는 수많은 戰鬪에서 勝者는 敗者의 軍隊를 擊滅함으로써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었다고 봄으로써 軍事戰略의 目的은 敵軍事力의 擊滅에 있다는 固定觀念이 생겨난 것 같다.

특히 近代兵學의 鼻祖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제비츠는 軍事戰略의 目的을 論함에 있어 軍事力의 暴力的 側面을 너무나 強調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戰鬪에 있어서 모든 行動의 目的은 敵의 抵抗力을 剝奪하는데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理論面에 있어서 不可缺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敵이 우리의 意志에 순종하게 하려면 우리는 敵을 우리가 抑壓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 이상으로 抑壓된 狀態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不利한 狀況이 적어도 外見上으로는 好轉될 可能性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敵은 屈服하지 않고 오히려 狀況이 好轉될 것을 희망하여 자기의 意志를 견지할 것이기 때문이다」(20)라고 하고, 또 「交戰者의 一方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狀態란 抵抗力을 완전히 剝奪당한 狀態이다. 그러므로 만약 敵이 屈服狀態에 있게 된다면, 敵은 확실히 抵抗力을 剝奪당한가 아니면 그러한 위협을 받는 狀態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敵 抵抗力의 완전한 剝奪이 戰爭의 目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21)라고 하여 戰爭의 目的을 敵 抵抗力의 完全한 剝奪에 두었다. 그리고 剝奪하여야 할 抵抗力으로서 첫째, 敵의 戰鬪力, 둘째, 敵의 領土, 셋째, 敵의 抵抗意志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 理由로서, 첫째, 敵의 戰鬪力은 再次 鬪爭을 계속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剝奪해야 하며, 둘째로 敵의 領土를 占領해야 할 必要性은 그 領土 內에서 새로운 戰鬪力이 생겨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셋째, 敵의 抵抗意志를 剝奪하여야 할 理由는 敵의 政府 및 그 同盟國으로 하여금 講和條約에 調印케 하고, 敵國民을 항복시키지 않는 限, 아직 戰爭은 終結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2). 이렇게 함으로써 論理上 戰爭의 目的과 相反될 수 없는 軍事戰略의 目的을 다만 敵의 完全한 擊滅에 局限시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는 戰爭에서 唯一한 手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戰鬪이다』라는 말을 비롯하여 「오직 위대하고 전면적인 戰鬪만이 위대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流血없이 정복할 수 있다는 장군들의 교훈을 듣지 말라」, 또는 「博愛主義者들은 流血없이 적을 무장 해제시키고 압도하는 교묘한 방법이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류는 근절되어야 한다」(23)는 등 流血의인 戰鬪를 찬양하는 많은 名句를 쏟아 놓고 있으며, 「戰鬪를 戰爭의 唯一한 手段」(24)이라고 봄으로써 戰鬪 以外의 他手段을 생각할 餘地를 없애고 말았다. 이렇게 戰鬪를 찬양하여 流血을 두려워 하지 않고, 이를 堪耐하도록 고취하고, 戰爭이라고 하는 極限의 狀況下에서는 生命을 가볍게 버릴 수 있는 勇氣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있어서 긍정

할 수 있는 일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戰爭은 그 狀況이 極限의이면 그럴수록 더욱 냉철하고 理性的인 판단을 그 指導者에게 要求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리델·하트는 클라우제비츠의 이 見解에 대해 「制限 없는 힘의 理論은 憎惡로 미쳐 날뛰는 폭도에게만 적합한 理論이다. 그것은 政治家의 責任을 否定하는 것이며, 동시에 政策目的에 봉사해야 하는 현명한 戰略에 대한 否定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25).

2. 東洋兵書의 見解

孫子は 軍事戰略의 目的을 論함에 있어 한 마디로 「凡用兵之法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26), 卽 『무릇 用兵之法(=軍事戰略)에 있어서 싸우지 아니하고 敵을 굴복시키는 것이 最善이며, 백번 싸워 백번을 모두 이겨도 이것은 最善이 아니다』라고 하여 軍事戰略의 目的이 싸우지 않고 勝利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吳子は 軍事戰略을 말하여 「謀者 所以違害就利」(27)라 하여 軍事戰略(=謀者)은 害로운 것(=戰鬪)을 피하고 勝利를 도모하는 것, 卽 가능한 한 流血의인 戰鬪를 하지 않고 勝利하는 것을 戰略의 目的으로 삼고 있다. 이 이외에도 「數勝得天下者稀以亡者衆」(28), 卽 「여러번 싸워 승리하여 天下를 얻는 사람은 드물고 오히려 그 때문에 亡하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고, 또 「天下戰國 五勝者禍, 四勝者幣, 三勝者霸, 二勝者王, 一勝者帝」(29), 卽 「天下戰國에 다섯번 승리한 사람은 너무 많이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이기긴 했으나 오히려 禍를 입고, 네번 승리한 사람은 그 때문에 피폐해지고, 세번 승리한 사람은 한 지방의 霸者가 되고, 두번 승리한 사람은 一國의 王이 되고, 한번, 다만 한번 승리한 사람이 天下를 다스리는 皇帝가 된다」라고 하였다.

위에 例擧한 바와 같이 東洋兵書의 一貫된 생각은 戰爭 혹은 戰鬪를 可能的 한 하지않고 敵을 굴복시키는 것이 最善의 軍事戰略이며, 혹 不可避하여 戰爭을 하게 되더라도 가능한 한 戰鬪를 적게 하고 勝利(政治的 目的의 達成)하는 것이 軍事戰略의 目的임을 나타내고 있다.

3. 現代戰略家의 見解

前述한 바와 같이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敵 軍事力의 擊滅」이 軍事戰略의 第1次的 目的으로 一般적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특히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見解가 一般化되는데 있어서 심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세기 初 航空機가 發明되고, 이 航空機가 武器化되어 戰線의 軍事力 뿐 아니라 敵國 内部의 産業施設과 人口 密集地를 攻擊할 수 있게 되자, 戰線에 있는 敵의 軍事力을 먼저 擊滅하고, 그 다음에 敵의 領土를 占領하고, 또 그 다음에야 敵의 抵抗意志를 말살한다는 클라우제비츠 식의 오랜 思考方式을 벗어나서, 敵 軍事力의 擊滅이나 敵 領土의 占領 以前에 먼저 敵의 抵抗意志를 剝奪함으로써 戰爭을 終結짓고 政治的 意圖를 실현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現代軍事學者中 이러한 생각을 처음으로 發表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航空戰略家 두레(Giulio Douhet)이었다.

그는 航空機로 攻擊할 수 있는 目標로 制空權 획득을 위한 目標과 敵의 意志를 말살하기 위한 目標의 두 종류로 나누고, 前者를 敵의 航空機와 航空機 生産工場 및 航空基地라고 하였으며, 後者를 産業施設 및 人口密集地(都市)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敵國의 심장부에 있는 政治的, 經濟的 中心地인 都市를 空軍力으로 파괴함으로써, 地上과 海上의 決戰없이도 敵을 屈服시키거나, 協商에 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인 戰略爆擊이며, 그렇기 때문에 空軍力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軍事力이며, 따라서 이 효과적인 軍事力 卽 空軍力の 育成에 國力を 集中시켜야 한다는 것이다(30)

이 이외에도 軍事戰略은 敵 軍事力の 擊滅을 위해서가 아니라 敵의 抵抗意志를 말살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다 나은 平和의 상태, 卽 自國의 國家利益에 적합한 國際關係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츠의 심대한 영향력으로 二次大戰이 끝난 20세기 中葉에 이르기까지도 이 새로운 軍事戰略의 概念은 一般化되지 못하였다(31).

이제 軍事戰略의 目的에 대한 學者들의 代表的 見解를 提示하고 筆者 나름대로 이를 綜合整理해 보려고 한다.

모겐소(Hans J. Morgenthau) 교수는 「軍事戰略의 目的은 他國이 軍事力을 使用하려고 해도 危險을 느껴 使用하지 못하도록 抑制하는데 있다. 환언하면 假想敵으로 하여금 軍事力의 使用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듦으로써 實際로 軍事力의 使用를 不必要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32).

노르(Klaus Knorr)교수는 戰略의 目的은 敵의 戰鬪하려는 意圖를 減少시키는데 있다(33)고 하였고, 게이빈장군(Lt. Gen. James M. Gavin)은 「戰略의 一次的 目的은 戰術的 戰鬪를 不必要한 것으로 만듦에 있다. 따라서 戰略의 成功如否는 戰鬪의 不必要性的 程度 如何에 따라 測定한다. 戰略의 二次的 目的은 戰鬪가 만약에 惹起된다 하더라도 勝利할 수 있도록 自國의 諸資源을 適切히 配置하여 둠에 있다」고 하였다(34)

그리고 리멜·하트는 「軍事戰略의 目的은 戰鬪를 감소시켜 最小限으로 하는데 있다. 敵 軍隊의 擊滅을 戰爭에서 唯一하고 진정한 目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戰略의 唯一한 目標가 戰鬪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勝利는 피의 代價」라는 클라우제비츠파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주장에 대하여 맹렬히 反論을 전개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들 자신의 근거에 입각하여, 그 주장을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戰略의 目的이 戰鬪를 最小限으로 감소시키는데 있다는 나의 주장은 확고부동하다. 그 이유는 비록 決戰이 目的이라고 할지라도, 戰略의 目的은 이 決戰을 가장 유리한 狀況下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狀況이 유리하면 할수록 그것에 따라 戰鬪는 적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完全한 戰略은 어떠한 決戰도 치루지 않고 勝利를 얻도록 할 것이다」(35)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훌륭한 軍事戰略으로 戰鬪를 省略하고 勝利를 획득한 史例로서, 「시이저의 일레르다(Ilerda)戰役, 크롬웰의 프레스톤(Preston)戰役, 나폴레옹의 울름(Ulm)戰役, 1870年 몰트케의 맥마혼(MacMahon)軍에 대한 세당(Sedan)에서의 포위전, 1918年 사마리아(Samaria)구릉지대에서 터어키軍에 행한 알렌비(Allenby)의 포위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가장 경이적인 예로서는 1940년 구데리안이 지휘한 독일군이 세당에서 기습적인 중앙돌파를 감행함으로써 베르기에 있던 연합군의 좌익을 分斷하고 포위함으로써 연합군의 붕괴를 초래하게 한 것을 들고 있다(36).

그리고 결론적으로 「軍事的手段이 國家戰略의 目的에 대한 여러 手段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이 戰鬪는 軍事戰略의 目的에 대한 여러 手段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軍事戰略의 眞正한 目的은 戰鬪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有利한 戰略的 狀況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37).

이상과 같이 軍事戰略의 目的에 關한 여러 學者들의 見解를 종합해 보면, 軍事戰略의 가장 優先하는 目的은 한 나라가 自國의 國家利益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政策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他國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抑制(戰爭의 抑制)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만약 抑制가 실패하여 戰爭이 勃發되면, 신속히 敵의 抵抗意志를 抹殺하여 自國에 有利한 條件으로 講和에 도달하도록 (迅速한 戰勝)하기 위하여 自國의 軍事的 資源을 配備하여 有利한 狀況을 造成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第 5 節 軍事戰略의 本質

지금까지 軍事戰略의 定義, 軍事戰略과 政策과의 關係 및 軍事戰略의 目的을 살펴보았다. 이제 軍事戰略의 本質은 무엇인가 考察해 봄으로써 그 概念을 좀더 明確히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本質이라고 함은 軍事戰略이 가진 바 本來的 性質, 卽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特質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나무와 석탄과 석유는 各各 相異한 것이나 우리는 그것들이 가진 可燃性이라는 性質을 이용하여 燃料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各種의 軍事戰略도 時代와 國家 또는 그것을 樹立하고 運用하는 사람은 달라도 한결같이 變하지 않는 本來的 屬性은 없는가? 만일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學者들의 見解를 綜合하여 규명해 보려는 것이 本節의 課題이다.

리델·하트는 그의 代表的 著書인 「戰略」(Strategy)에서 古代 그리스時代로부터 1949年の 第1次 中東戰爭까지를 면밀히 분석 연구한 뒤에 軍事戰略의 本質을 「間接接近」(Indirect Approach)이라는 말로서 표현하였다.

그는 戰史研究를 통하여 이것을 發見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는 「25년간의 研究와 思考의 結果」이며, 「直接接近」(Direct Approach)에 對한 間接接近의 우월성을 처음 認知하게 되었을 때,

軍事戰略에 對한 한줄기 光明을 찾게 되었다」(38)고 기뻐하며 「軍事戰略의 歷史는 根本的으로 間接接近의 適用과 發展에 關한 記錄이다」(39)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가 주장하는 이 間接接近이란 무엇을 意味하는가? 그 自身の 설명을 빌리면 이것은 敵의 「最小抵抗線」으로의 접근을 意味하며, 心理的 側面에서는 「最小豫想線」으로의 접근이라고 말하고 있다(40).

다시 말하면 間接接近이란 敵이 友軍의 攻擊을 豫想하지 못하므로 방어가 가장 미약한 곳을 따라 敵에게 接近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友軍의 가장 적은 손실로 가장 큰 타격을 敵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敵이 豫想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敵을 欺瞞해야 하는 것이다. 리델·하트와 같이 接近할 場所는 물론이고, 그 時期, 規模, 方法 등을 欺瞞함으로써 間接接近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間接接近은 곧 敵에 對한 欺瞞인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도, 戰略이라는 말은 原來 회람語의 詭計라는 말에서 由來하였다.

그후 戰爭의 性質과 規模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직 戰略 그 自體의 本質은 여전히 詭計임을 보이고 있음은 當然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하여 直說的으로 軍事戰略의 欺瞞性을 表現하고 있다(41).

뿐만 아니라 「詭計는 詐欺와는 다르다. 詐欺는 직접 말로서 속이는 것이나, 詭計는 相對方의 知力을 속여 過誤를 犯하게 해서, 그러한 過誤가 모여 한 作用을 일으켜 지금까지 眞像으로 여겨왔던 것을 相對方의 눈앞에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 버린다. 따라서 機智를 着想과 想像의 要素이라고 한다면 詭計는 行動의 要素이다」라고 하여 軍事戰略의 欺瞞性을 主張하고 있다(42).

英國의 戰略家 풀러將軍(J. F. C. Fuller)은 『기억하라 장래의 전쟁에서는 일층 더 欺瞞성이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다. 전쟁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장군의 지혜는 일층 더 예리하여야 하며, 敵에 대해서는 여우와 같이 교활하고 사자와 같이 조용해야 한다』라고 하여 軍事戰略의 欺瞞性을 강조하였다(43).

이 이외에도 삭세(Saxe)장군은 『將軍은 敵을 「欺瞞」하고 그 배치를 혼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며, 아울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당한 장소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方法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44).

한편 東洋兵書에서는 軍事戰略을 權謀, 計謀, 謀攻之法, 智略, 謀略 등으로 表現함으로써 軍事戰略의 欺瞞性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孫子は 直接的으로 「兵者詭道也」(45)라고 하기도 하고 「兵以詐立」(46)이라고 하기도 하여 軍事戰略의 欺瞞性을 強調하였고 유명한 그의 「詭道 十四變」으로서 이를 잘 說明하고 있다(47).

그리하여 唐太宗은 「朕이 많고 많은 兵書를 보았지만 요컨대 온갖 計略을 써서 敵을 欺瞞한다는 단 한 귀결에 지나지 않는구나」(朕觀千章萬句 不出乎多方以誤之 一句而已)라고 갈파하였던 것이다(48).

이와 같이 東西를 막론하고 많은 學者와 兵書가 모두 軍事戰略의 本質이 欺瞞임을 나타내고 있다.

戰史上的 例를 살펴 보더라도 모든 成功的인 軍事戰略은 敵을 欺瞞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軍事戰略의 不變의 本質은 欺瞞性이라고 할 수 있다.

第 6 節 結 論

지금까지 學者들의 見解를 比較 檢討함으로써 軍事戰略의 定義와 軍事戰略과 政策과의 關係 및 軍事戰略의 目的, 그리고 軍事戰略의 本質을 考察하였다.

이를 要約해 보면, 戰略(Strategia)이란 말은 회랍語의 스트라테지아(Strategia)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스트라테고스의 用兵術, 卽 將軍의 用兵術을 意味한다. 그 이후 이 말의 뜻은 점차 확대 발전하였으며, 學者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定義가 속출 하였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볼트케」와 「리델·하트」 그리고 웨브스터 辭典의 定義를 綜合해 보면 『戰略이란 國家政策에 依하여 設定된 諸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軍指揮官이 그에게 맡겨진 軍事力을 運用하는 科學이며, 技術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定義는 다만 軍事力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戰爭의 규모가 總力戰으로 바뀌고 國防이 軍事力만에 依해서가 아니라 國家의 總力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學者들은 戰略의 概念을 확대하여 國家戰略(혹은 大戰略)의 次元에서 定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확대된 概念의 戰略은 「國家政策에 依해 決定된 諸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國家의 모든 資源을 運用하는 技術이며 科學이다」라고 定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國家戰略은 그 使用하는 資源의 종류에 따라 軍事戰略을 위시하여, 經濟戰略, 政治戰略 및 心理戰略 등으로 區分되며, 이에 따라 軍事戰略의 定義는 『國家政策에 依해 決定된 諸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軍事力을 運用하는 技術이며, 科學이다』라고 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軍事戰略과 政策과의 關係를 살펴보면, 定義에서 알 수 있듯이 軍事戰略은 國家政策에 依해 決定된 諸目標의 達成을 爲한 手段이다. 그런데 國家政策은 國家目標의 達成을 위한 國家의 行動原則 및 行動方針이므로 軍事戰略은 當然히 이 原則 내지 方針에 基礎를 둔 實踐計劃이어야 하며, 더 具體적으로 말하면 國家政策의 軍事的 分野인 軍事政策을 基礎로 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을 實踐하기 爲한 計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軍事戰略의 目的은 最近까지 敵 軍事力의 擊滅에만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특히 클라우제비츠의 영향으로 이 생각은 더욱 심화·지속되었다. 그리하여 戰勝을 위하여서는 어떤 手段도 正當化될 수 있다는 생각을 낳게 하였으며, 軍事戰略이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計劃이 아니라 오히려 政治的 目的을 軍事的 要求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그

러나 軍事戰略의 진정한 目的은 一國이 自國의 國家利益을 추구하기 위한 諸政策을 遂行해 나가는 데 있어서 他國이 이를 放棄하지 못하도록 抑制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萬一 戰爭이 勃發되면 신속히 敵의 抵抗意志를 抹殺하여 自國에 有利한 條件으로 講和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自國의 軍事的 資源을 配備하여 有利한 狀況을 造成하는데 있다.

끝으로 時代와 國家, 그리고 軍事戰略을 樹立하고 執行하는 담당자가 누구이든지 軍事戰略이 갖는 不變의 特性이 무엇인가를 檢討하였다.

리델·하트는 이를 「間接接近」이라 하였고, 풀러는 「속임수」를 강조하였으며, 클라우제비츠는 「詭計」라 하였고, 孫子は 이를 「詭道」라 하였다.

이상의 見解와 戰史上의 事例를 考察해 보면 唐太宗의 지적과 같이 要컨데 온갖 計略을 써서 敵을 欺瞞하는 것, 卽 이 欺瞞性이야말로 모든 軍事戰略의 必須의 本質임을 알 수 있다.

— 註 —

- (1) Kissinger, Henry A.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Y. Harper & Brothers, 1957, pp. 21~22.
- (2) 辛正道, 戰略學原論. 서울 東西兵學研究會 1970, p. 15.
- (3) 陸軍士官學校, 近世以前의 戰史. p. 14.
- (4) Liddell Hart, B.H. *Strategy*, rev. N. Y. Praeger 1961, p. 333.
- (5) Ibid. p. 333.
- (6) Ibid. p. 334.
- (7) Ibid. pp. 335~336.
- (8) *Strategy* in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
- (9) Clausewitz, K.V., *On War*; Trans O. J. Matthijs Jolles, Washington D.C. Infantry Journal Press, p. 16.
- (10) Beaufre, Gen. d'Armée André. *An Introduction to Strategy*, Trans. R.H. Barry N.Y. Praeger 1965, pp. 21~23.
- (11) Wedemyer, Gen. Albert C., *Wedemyer Reports* N.Y. The Devin Adair Co. 1958, p. 91.
- (12) *Strategy* in Dictionary of U.S. Military Terms for Joint Usage (Short Title, J.D.), Joint Chiefs of Staff, Washington D.C. 1964.
- (13) Earle, Edward M.,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43, p. vii.
- (14) 李鍾學, 現代戰略論, 서울 博英社. 1972, p. 92.
- (15) Liddell Hart, B.H. *Op. Cit.*, p. 335.
- (16) King, James E., (ed.) *Lexicon of Terms Relevant to National Security Studies on Arms and Arms Control*,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d. Washington D.C. 1960, p. 21.
- (17) Liddell Hart B.H. *Op. Cit.*, p. 336.
- (18) Wedemyer, A.C. *Op. Cit.*, pp. 79~85.
- (19) Liddell Hart, B.H. *Op. Cit.*, p. 351.
- (20) Ibid. p. 354.
- (21) Ibid. p. 354.
- (22) Clausewitz, K.V. *Op. Cit.*, p. 19.
- (23) Liddell Hart B.H. *Op. Cit.*, p. 354.
- (24) Clausewitz, *Op. Cit.*, p. 514.
- (25) Liddell Hart, B.H. *Op. Cit.*, p. 355.
- (26) 孫子 謀攻篇.
- (27) 吳子 圖國篇.
- (28) 吳子 圖國篇.
- (29) 吳子 圖國篇.
- (30) Earle, Edward M., (ed.) *Op. Cit.*, p. 409.
- (31) *Strategy* in Encyclopedia Britannica,

- Vol. 21, 1957, p. 453.
- (32)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N.Y. Alfred A. Knopf, 1956, p. 28.
- (33) Knorr Klaus. *The War Potential of Nations*, N.Y. 1958, p. 45.
- (34) Gavin, James M., *War and Peace in the Space Age*, N.Y. Harper & Brothers 1958, p. 230.
- (35) Liddell Hart B.H. *Op. Cit.*, p. 338.
- (36) *Ibid.* p. 338.
- (37) *Ibid.* p. 338.
- (38) *Ibid.* pp. 17~19.
- (39) *Ibid.* pp. 17~19.
- (40) *Ibid.* pp. 339~341.
- (41) Clausewitz, K.V. *Op. Cit.*, p. 146.
- (42) *Ibid.* p. 146.
- (43) Fuller, J.F.C. *Armored Warfare*, Harrisburg, 1951, p. 67.
- (44) Philips, T.R., *Roots of Strategy*, Harrisburg, 1950, p. 298.
- (45) 孫子 始計篇.
- (46) 孫子 軍爭篇
- (47) 孫子 始計篇
- (48) 李衛公問對(下)

— 參 考 文 獻 —

1. 權寧吉編 兵法七書, 海東文化社, 1963.
2. 辛正道著 戰略學原論, 東西兵學研究所 서울, 1970.
3. 李鍾學著 現代戰略論, 博英社, 서울, 197.
4. Liddell Hart, B.H. : *Strategy*(rev.) N. Y. Praeger, 1961.
5. Clausewitz, Karl von. : *On War* tr. O. J. Matthijs Jolles, Washington D. C. Infantry Journal Press, 1950.
6. Beaufre, Gen. d'Armée André : *An Introduction to Strategy*, tr. R.H. Barry, N. Y. Praeger, 1965.
7. Earle, Edward M.,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43.
8. Gavin, James M. *War and Peace in the Space Age*, Harper & Brother N. Y. 1958.
9. Philips, T.R. *Roots of Strategy* Harrisburg 1950.
10. Knorr Klaus, *The War Potential of Nations*, N. Y. 1958.
11. Wedemyer, Gen. Albert C. *Wedemyer Report* N.Y. The Devin Adain Co., 1958.
12. Kissinger, Henry A.,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Harper & Brothers N. Y. 1957.
13.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N. Y. Alfred A. Knopf, 1967.
14. *Encyclopedia Britanica* Vol. 21.
15. *Dictionary of U.S. Military Terms for Joint Usage*(JCS Pub.1) Washington D. C. : J. C. S. 1972.
16. Collins, John M. : *Grand Strateg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73.

A Study of English in the Authorized Version

Instructor Kang, Suk Chong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anguage of the Authorized Version and that of the living generation with respect to some syntactic aspects of grammar.

The Authorized Version is the English Bible published in 1611. Though there had been many English translations of the Bible up to that time, they were not widely used among the people or even in the churches. Consequently, England needed a new version of translation that would incorporate the best features of earlier ones in their revision.

At the Hampton Court conference of clergy held in 1604, John Rainolds of Corpus Christi College, Oxford, proposed a new translation of the Bible. King James I accepted the proposal and granted the request for the translation. A total of fifty-four prominent scholars were invited to undertake the work, at Oxford, Cambridge, and Westminster. Their translation was completed by 1611, the translation which has been referred to as the Authorized Version since then (in the United States it is more commonly called the King James Version). Since the 19th century its revisions and many new translations of the Bible in modern language have appeared. These, however, have rarely replaced the Authorized Version in public worship.

Despite the master work of English literature, when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open the Authorized Version, they may be puzz-

led at the unfamiliar expressions of its languag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differences in words and syntax are found to exist between its language and the present-day speech.

Among these differences to be noticed are the word order of sentences, the omission of quotation mark in directive speech in the Authorized version, and the way the relative pronouns and prepositions are used.

It is also noticed that some current usages or expressions such as double comparison, double negation, the use of for to and that of not~nor in reference to the present to and neither~nor, etc. are also found in the Bible as their ancestors.

It may be safe to say that when the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learn the different expressions of the Authorized Version, they may read the Bible with more interest and inspiration than when they read any other books of modern English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language of the Bible is more direct, vital, and rhythmical than that of the present-day English.